

출장결과보고

1. 출장목적: 일본의 관세화 전환 이후 TRQ 쌀 관리방안 변화 내용
및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업투자 입장 의견 수렴
2. 출장자: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박동규
3. 출장지 및 기간: 일본 동경 일원, 9.28~9.30(2박 3)
4. 방문처(면담자)
 - 농림수산업성 식량부 기획과 Mitsuaki Shindo, 국제협력과 長井具人
新, 쓰구바대학 高安雄一 교수, JA전중 馬場梨彦
5. 주요 조사내용

<관세화 전환으로 in-quota 물량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고 out-quota는 수출국에 수출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, 관세화 전환 이후 달라진 내용은 관세화로 쿼터량을 초과한 수입량이 급증하면 세이프가드를 작동할 수 있다는 것>

- 일본은 1999년 관세화 전환 이후 매년 의무수입량은 72만 4천 톤으로, 2000년에 관세화 전환 경우보다 연간 4만 3천 톤의 수입량이 줄어듦
 - 고율관세를 부과 후 수입되는 물량은 연간 120톤 수준으로 미미
- 국제 쌀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본은 2008년에 37만 톤만 수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내의 해석이 다양하지만 일본 정부는 in-quota를 의무수입으로 판단
 - 관세화로 전환 후 in-quota는 수출국에 수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in-quota 물량을 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(관세화 전환

의 장점), in-quota는 의무수입량이므로 관세화 전환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대립함

- 일본(식량정책 담당자)에서는 in-quota는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고, out-quota는 수출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. 즉, 관세화 전후 의무수입량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

○ 일본이 2008년에 in-quota보다 적은 37만 톤만 수입한 것은 국제시장의 문제이지 일본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

- 국제 쌀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고, 일본이 수입을 위한 입찰을 하였으나 수출국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 수입량이 줄어들었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.
- 즉, 수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수출국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수입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임
- 수입되지 않은 물량을 추가적으로 수입할 의향이나 계획이 없음

○ 최근 수입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재고량의 일부를 사료용으로 사용화고 있음

- 식량용으로 연간 10만 톤 정
- 쌀과자, 주정 등 가공용 20-30만톤
- 해외 원조 10만톤
- 사료용으로 40-60만 톤(사료용 사용은 2006년부터)

○ 관세화 전후 수입쌀 관리방식에 큰 변화 없음

- 1999년 WTO에 협정문 수정안 제안한 내용에 관세상당치와 SSG만 표기하였음

(예)

Item 1006.20

The item shall read:

1 1006.20 1-Husked(brown) rice @ 1402yen/kg 134yen/kg 1 1
SSG

- 수입쌀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, 시장에 방출 시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점 발생
- 이미 관세화 개방의 결과 고율관세가 가능하므로 굳이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조치가 불필요함
- DDA협상에서 고율관세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식량은 중요한 품목이므로 이를 지켜나가야 함

<국제곡물 수급안정에 일본의 곡물 수급안정에 중요하다는 판단하에, 국제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농업투자 촉진을 유도함>

- 일본의 식량안보 확보 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은 국내 자급을 중시하되 수입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 곡물공급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함
 -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제고하여 공급의 안정성 확보,
 - 적정물량을 비축하여 비상시에 대비(예, 주식인 쌀),
 - 수입선 다변화 등 수입 안정화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되,
 - 수출국의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수입이 안정되도록 해외농업투자를 촉진함
-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의 생산능력이 향상되어 공급 능력 및 공급 가격의 안정화 도모하도록 해외농업투자촉진을 추진함
 - 투자촉진 지침 마련의 배경: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 후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인구와 소득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곡물 부족이 우려됨. 곡물 수입국으로서 공급의 안정을 위해 외무성과 농림수산성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농업투자 촉진 유도
 - 위원회는 외무성, 농림수산성, 경제산업성, 국제협력은행(JBIC), 국제협력기구(JICA), 일본무역진흥기구(JETRO), 일본무역보험이 참여함
- 곡물안전보장을 위한 해외농업투자 대상 농산물은 콩과 옥수수

(MAIZ) 등. 투자대상 지역은 중남미, 중앙아시아, 동유럽 등으로 투자환경 정비 등을 실시함. 국제무역과 수요, 투자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.

- 투자환경의 정비, ODA와 연계, 공적금융의 활용, 무역보험의 활용, 농업기술지원, 농업투자관련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하도록 구축함
- 투자의 행동원칙 제시: 피투자국의 농업의지속가능성을 확보, 투명성 확보 투자내용과 기간 등 피투자국의 법령 준수
 - 피투자국의 농업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: 예를들면 농지 취득 시 적정한가격 지불 등, 현지인 고용 시 적절한 노동조건, 농업인 등 고용인에 대한 배려 등
 - 피투자국의 환경 등을 적절하게 배려: 토양황폐, 수원 고갈 등 환경에 부작용을 주는 경우
 - 피투자국의 식료사정을 고려하여 피투자국의 주요 작물을 우선적으로 재배하도록 유도

<식량안전보장을 위한 해외투자촉진 민관역할>

